

서산 풍전저수지, 많은 봉사자들의 따뜻한 손길로 되살아나다!

서산시, 농어촌공사, 새마을지도자회, 사회단체 등 170여명 동참
지역 공동체가 힘 모아 일상으로 회복해 가는 좋은 사례로 평가

임봉순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25-08-18 12:31



서산 풍전저수지 환경정화 활동 모습.



서산 풍전저수지 환경정화 활동 모습.



서산 풍전저수지 환경정화 활동 모습.



서산 풍전저수지 환경정화 활동 모습.

지난 7월 중순 갑작스런 폭우로 피해를 입었던 서산 인지면과 부춘동 접경의 풍전저수지가 170여 명의 시민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있다.

17일 무더운 여름 아침, 서산시 인지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비롯한 사회단체와 직원 60명, 부춘동 사회단체 30명, (사)한국해양인명구조협회 서산시본부에서 제트스키 5대와 보트 1대를 동원한 30명, 서산 시청 자원순환과 직원 20명, 한국농어촌공사서산태안지사 30명 등 총 170명이 저수지 정화 활동에 나섰다.

이날 봉사자들은 뜨거운 햇살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며 저수지 주변과 수중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하나 하나 수거했다. 또한 해양인명구조협회 회원들은 물속에서 집중적으로 쓰레기를 건져내며 진정한 봉사 정신을 보여주었다.

오전 11시까지는 인지면과 부춘동 주민들이 앞장서 저수지 뚝 주변을 깨끗이 정리했으며, 이후에는 해양구조대가 수중 정화 작업을 오후 늦게까지 이어갔다. 이날 봉사자들의 헌신 덕분에 풍전저수지는 빠르게 아름다운 원래 모습을 되찾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지역의 소중한 자연을 지키기 위해 한마음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활동이 지역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정화 활동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힘을 모아 일상으로 회복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로, 서산 시민들의 따뜻한 손길과 봉사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미담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서산=임봉순 기자 ibs9900@
